

< 제 8 장 >

요 8:1-11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심.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단순한 율법 적용이 아니라, 7장에서 계속된 논쟁의 연장선이었으며,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는 의도였다.

그들은 율법을 앞세웠지만, 목적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있었다.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분리될 때, 그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1절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정죄하다”(κατακρίνω)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유죄를 확정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으나,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드러내신다.(요3:17 참조)

이 여인의 죄는 간음이라는 구체적 허물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행위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셨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용서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은혜임을 나타낸다.

정죄의 핵심은 단순한 행위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부와 불신에 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윤리와 도덕에 비추어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나 선악에 대한 ‘분별’(διάκρισις)과 ‘정죄’(κατακρίμα)는 구별되어야 한다.

‘분별’은 말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지만, ‘정죄’는 최종 판결자의 자리에 서서 단정하는 태도이다. 인간은 분별할 수 있으나, 정죄할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라는 관점은 자칫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과 윤리의 틀 안에서 선악을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규정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요셉 형제들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속에서는 그 사건들이 구원의 역사 안에 사용되었다.

이는 ‘죄’가 ‘선’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까지도 섭리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넘어 이루어진다.

인간에게는 ‘양심’과 ‘가책’이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συνείδησις)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내적 기준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의식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도록 주어진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가책”(ἐλεγχω)은 드러내고 책망하는 작용이다.

말씀은 외적 규범을 넘어 내면을 비추어 숨겨진 상태를 드러낸다.

율법은 외적 행위를 규정하지만, 말씀은 내면을 비추어 드러낸다.

이 장면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는 자들의 숨은 상태를 드러내고, 죄인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정죄는 사람을 달하게 하지만, 말씀은 양심을 깨워 회복의 자리로 이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을 들고 서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로 서야 한다.

요 8:12-20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신을 증언하심.

앞부분에서 정죄와 은혜를 드러내신 예수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을 선포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ἐγώ εἰμ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여기서 “나는”(ἐγώ εἰμι)은 단순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연결되는 존재론적 선언이다.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곧 빛이심을 밝히신다.

“세상의 빛”은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계시이다.

초막절의 등불 의식 속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성전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된 빛이심을 드러낸다. 빛은 단순히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내는 존재이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동시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단순히 밝은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이 빛 앞에서 드러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기를 아신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단순한 방향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실 존재라는 자기 계시이다.

20절 “~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서 “때”(ῥα, 호라)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의 결정적 시점을 의미한다.

빛이 선포될수록 반발은 커지지만, 그 빛은 하나님의 정하신 “호라”를 향해 나아간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절정의 순간이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인간의 판단이나 반응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때’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 8:21-28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심.

21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선언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며 죽이려 하였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장소적 이동의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가’라고 오해하였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위’와 ‘아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과 소속을 가리킨다.

‘위’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며, ‘아래’는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의미한다.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ἐγὼ εἶμι)은 명사가 생략된 절대적 표현으로, 단순한 자기 지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암시하는 선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한 메시아로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드러내신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행위적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이다. 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죄의 본질이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든다”(ὑψώσατε)는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높임을 뜻하는 이중적 표현이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수치와 죽음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과 계시의 자리이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데 달려 있다.

죄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빛을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분기점이며, 존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응답이다.

요 8: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πάντοτε)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전인격적 순종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순간의 헌신이 아니라, 존재와 사역 전반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를 가리킨다.

“기뻐하시는 일”(τὰ ἀρεστὰ αὐτοῦ)은 단순히 도덕적 선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뜻(θέλημα)에 합한 사역, 곧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의 사명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순종은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 가는 완전한 순종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삶이며,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관계 안에 계셨다.

<히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나 언어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그 뜻에 맡기는 전인격적 의탁을 의미한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며, 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제적 표현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단순한 확신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은 윤리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와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ἀλήθεια)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라,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실재를 의미한다.

이는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계시 전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교리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다.(요14:6)

“자유롭게 하리라”(ἐλευθερώω)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며, 이는 단순한 심리적 해방이나 선택의 확대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의 지배를 끊으시고, 믿는 자를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러므로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이며, 이 자유는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되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1. 죄에서의 자유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속박 가운데 살아간다. 감옥에 갇힌 자처럼 삶이 제한되고, 양심의 가책과 불안은 내면을 얽매이게 한다. 참된 자유는 죄 사함에서 시작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자유도 온전할 수 없다.

2. 건강에서의 자유

육신이 병들면 삶의 활동이 제한되고, 마음도 쉽게 위축된다.

건강은 단순한 육체의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결국 영육 모두가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물질에서의 자유

물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을 얽매는 요소가 된다.

부족함도 속박이 될 수 있고, 넘침도 또 다른 속박이 될 수 있다.

참된 자유는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지배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

4. 평안에서의 자유

마음의 평안은 인간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가정과 이웃과의 불화는 내면에 지속적인 얽매임을 만든다.

참된 자유는 외적 조건을 넘어, 내면의 평강이 유지되는 상태를 포함한다.

이 네 가지가 일정 부분 충족될 때 사람은 형통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자유의 완성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더 근본적인 자유가 요구된다.

첫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 통과와 문이 된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둘째,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인간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고후3:17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혜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외적 조건의 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있다.

<요8:36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는 선택의 확대가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이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자유이다.

요 8:37-59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심.

1. 혈통과 영적 정체성 (37-41절)

이 단락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정체성의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영적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드러낼 것이다.”

여기서 ‘자손’은 혈통적 계승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따르는 영적 계승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결국 혈통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2. 두 아버지의 대비 (42-47절)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는 말씀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를 거부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이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와 진리를 거부하는 태도는 그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여기서 핵심은 혈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영적 소속은 선언이 아니라 반응으로 드러난다.

3.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1절)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이는 육체적 죽음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궁극적 죽음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말씀을 지키다”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실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을 초월하며, 죽음은 더 이상 최종적인 권세가 되지 못한다.

4.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56절)

아브라함은 약속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린 자였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의 신앙은 존중하면서도, 그 신앙이 가리키는 실체를 거부하는 모순이 드러난다.

5. 절정의 선언 — “ἐγὼ εἶμι” (에고 에이미)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ἐγὼ εἶμι)”

여기서 “ἐγὼ εἶμι”는 단순한 시간적 과거 표현이 아니라,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절대적 존재 선언이다.

예수님은 “나는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속하지 않는 존재, 곧 하나님 자신과 연결된 존재임을 드러내신다.

이 선언은 단순한 메시아 주장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 이는 그들이 이 말씀을 신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이 단락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그를 믿는 자는 생명에 참여하지만, 그를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단절의 자리에 서게 된다.

<요한복음 8장> 빛과 진리 앞에서 사람의 정체는 드러나는 장이다.

정죄하려는 자들은 율법을 앞세웠으나, 예수님은 은혜로 응답하셨다.

빛이 선포되자 어둠은 물러서기보다 오히려 반발하였고, 진리가 드러나자, 사람들의 중심이 분명히 나뉘었다. 그들은 혈통을 자랑하였으나 말씀을 거부하였고, 아브라함을 말하였으나 그의 믿음과 순종은 따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진리를 통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생명, 곧 구원이며, 그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 그리고 순종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만이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된다.